



조은수 교수는 ...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 박사과정 수료 후 도미하여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 미국 미시간 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학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2004년 이래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교 철학 전공. 논문으로 '원효에 있어서 진리의 존재론적 지위', '불교의 경전 주해 전통과 그 방법론적 특징', '범망경(梵網經) 이본을 통한 고려대장경과 돈황(敦煌)유서(遺書) 비교연구', '종교적 신앙심과 미술적 영감 - 삼국유사의 불교적 읽기' 등이 있다. 저술로는 <Korean Buddhist Nuns and Laywomen: Hidden Histories, Enduring Vitality> (SUNY Press, 2011), <Jikji simgyeong> ('직지심경' 2인 공동 역역)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초대 소장,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기록유산 출판소위원회 의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을 역임. 현재 불교학연구회 회장, 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오�히려 여성들이 스스로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과 재가 여성이 불교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수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사카디타 여성불자국제협회(Sakyadhit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카디타는 '석가의 딸들'이라는 뜻으로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 여성단체로 세계 45개국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조 교수는 사카디타 개최하는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논문집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하는 한편 국내외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자들의 교류 증진을 통한 국제불교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조은수 교수는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도 교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GEP는 불교계의 여성단체,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1년에 한 차례 2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계적인 여성불교지도자 록세 소모 교수와 대담을 나누는 조은수 교수



2013년 인도 바이살리에서 열린 사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한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비구니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B-GEP)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로 개설해 12주 간 영어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하는 B-GEP도 명법 스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제1차 GEP 수료생들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서 논문 번역서를 만들고, 컨퍼런스 발표 통역을 수행하는 성과를 냈으며 제3차 수료생들은 인도 바이살리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해 통역과 번역봉사자로 활약했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 교수의 꿈은 무엇일까. 조 교수는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 3월에 뉴욕에서 미국고등교육재단 장학금 심사를 진행했다"며 "세계에 불교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홍콩의 부호 로버트 호가 기부한 기금으로 수백 명의 교수와 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 세계적인 학자를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이 처음이자 끝이죠. 불교정신에 입각해 세계에 당당히 활동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조 교수는 "교육은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불교정신에 입각해 세계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함께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뷰 하는 내내 조은수 교수에게서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이미지가 물씬 풍겼다. 부드러운, 우아한 속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향기가 조은수 교수에게서 느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나의 첫 상좌 '오복 스님'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소년이 대문사로 찾아왔다. 소년은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김승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며칠 전 전화를 주셨던 도리사 법등 큰스님의 신중한 음성이 떠올랐다. "선군이 있어 틀림없이 스님이 될 인연이 있는 학생이 있으니 잘 키워봐라"

스님은 내게 밑에 거둔 제자가 있다고 물었다. 정신없이 대문사와 이주노동자 센터,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오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르칠 처지가 아니었다.

기특하게도 승재는 도착한 날부터 새벽 5시 예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다. 내가 처음 출가할 때 스승으로 모시려던 분이 더 좋은 스님이 계신다며 소개했던 것처럼 승재도 큰스님의 소개로

정도로 부끄러워했던 승재에게 커다란 변화였다.

"승재야 너 지금 공부하니 제주도 같 시간이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라. 제주도 자전거 도전이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은근히 빠지려는 거지?"

한참을 머뭇거리던 승재는 통일청소년들과 제주행에 동참했다.

승재는 비록 부모의 권유로 절에 보내졌지만 두 번의 봄과 겨울을 함께 보내면서 단순히 절에 맡겨진 아이가 아니라고 느꼈다. 승재를 불렀다.

"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래 고민이 끝났니?"

"네, 그런데 스님, 제가 스님처럼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울컥했다. 그동안 승재에게 머



그림 · 박구원

내게 왔으니 참 희화했다. 첫 만남부터 예상치 못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함께 하는 동안 승재에게 스님이 되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성실하고 순한 아이가 거친 수행의 길에 들어선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 한편이 찌르는 듯 아렸다.

당시 대문사에는 승재 외에도 2명의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

실상 순한 승재는 동생들 등쌀에 늘 당하고 살았다. 용돈을 주면 번번이 간식비로 뺏기고 방청소는 혼자 다 했다. 동생들이 말쑥을 부리던 형이라는 이유로 대신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래도 억울하는 말대꾸 한 번을 안 하고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혼내는 나를 미안하게 만들었다.

승재가 변한 건 고3이 되어서였다. 3박 4일동안 자전거로 220km 제주일주를 하러가자는 말에 못 간다고 반기를 들었다.

"스님, 저 수행생이에요."

지난 학기까지 내 말에 순순히 따르던 아이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했다. 수행준비를 하는데 말이 되냐는 눈빛이었다. 2년전 처음 절에 왔을 때 대문사 행 버스타는 곳을 사람들에게 묻지 못할

리 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래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가거나 기술을 익혀 회사에 입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래전 스승이 내게 했던 말을 승재에게 해주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 없다는 것" 만약 승재의 출가 의지가 약해졌다면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뒤를 이을 제자를 만났다는 것에 든든함이 느껴졌다.

승재는 지난 2월에 사미계를 받았다. 21 일간의 집중 교육에서 오후불식과 3천배 과정을 당당히 극복하고 승복을 입었다. 법명을 무엇으로 지을까 궁리하다 '깨달음을 얻고 복을 지으라'는 의미로 깨달을 뭇. 복 뭇. 오복스님으로 결정했다. 마침 나의 법명에도 깨달을 오가 들어가 있으니 만일 승재가 계속 스승의 길을 간다면 '진 오스님을 따라 복지사를 업을 펼치라'는 의미로 해석하니 일석이조의 법명이다.



진오 스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 구미 대문사 주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 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총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해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